

수호지 양산박 빼닮은 천연요새 10리 계곡



암릉지대



용추사



출렁다리



김희순의 호남의 명산

담양 용추봉 (579m)

영화 '남부군' (南部軍)은 1990년 정지용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다. 당시 급기시 되던 빨치산 소제는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흥행에도 성공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전쟁영화 중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반전 (反戰) 영화라는 평가를 받는다. 빨치산의 역사는 1949~1954년 5년 동안 약 2만 명이 희생된 근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지리산 일대에서 쫓기며 활동하던 남부군의 삶은 이념을 떠나 추위와 굶주림, 필사적 사투와 같은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영화 남부군의 주요 촬영지 중 한 곳이 담양 '가마골'이다.

중국 고전 <수호지水滸記>는 북송 말엽에 송강이 영웅들을 집합시켜 봉기했다는 무용담이다. 양산박 (梁山伯)은 산세가 험하고 물이 깊어 관청에 반항하는 호걸들이 숨기 좋았다고 한다. 담양 가마골의 지형은 양산박처럼 높은 석벽 협곡이 구불구불 10리나 이어져 있다. 여러 산이 겹치고 있어 은폐하기 좋고 계곡에는 크고 작은 폭포와 넓은 분지가 있다. 수량 또한 풍부해 저장하기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실제로 가마골은 6·25 때 가장 치열했던 빨치산 격전지 중 하나에 속한다. 빨치산은 가마골을 근거지로 삼아 '노령지부사령부'를 조직하고, 무려 5년 가까이 사리원, 반계 병단 등 600~3000명 규모의 빨치산 활동을 이어갔다. 병기 시설인 탄약 제조장과 군사학교, 인민학교, 정치보위학교와 정미소까지 설치했다. 최후의 작전지구인 이곳을 이슬만 대동령이 직접 방문해 격려했을 정도다. 그들만의 해방구는 1955년 3월에 이르러서야 군정 합동작전에 의해 완전히 섬멸되었다.

'가마골'이란 지명은 그릇을 굽는 가마터가 많다고 해서 유래한다. 용추사 주변에서 임도공사를 하던 중 오래된 가마터를 발견하면서 구전이 사실이었음이 입증됐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시련의 계곡 품어낸 비경, 신선봉서 맛드프린 환희 핏빛 아픈 역사 위 청량하게 쏟아지는 용소의 울림

1997년 2000년 두 차례 발굴한 결과, 15~16세기 널리 유행했던 물결무늬 (파상문) 기와가 다량으로 출토되었고 용추사의 중창 불사, 보수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학계에서는 근처에 '사기소리 (사기를 굽던 곳)', '신사기리' 같은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도자기나 그릇을 굽던 가마터가 여러 곳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산강 시원지 용소·출렁다리 명소

드라이브 코스로 이름난 29번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담양호 주변에 우람한 암벽의 추월산이 눈에 띈다. 그곳에서 10여 분 더 달리면 '가마골' 안내 간판과 함께 계곡이 시작된다. 계곡 주변에는 상가와 물놀이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여름철엔 피서지로 사랑을 받는다. 1986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고, 명소도 많다. 계곡 안쪽에 있는 30m 높이의 출렁다리 (시원교)는 가마골의 전경을 감상하기 좋은 포인트다. 그 아래에 남도의 젓줄인 영산강 138.75km의 시원지 (始源池) 용소 (龍潭)가 있다.

용추봉은 호남정맥 8구간에 해당되며 원점회귀산행 가능하다. 이정표가 충실하지 않기에 임도와 분지 지점에서는 선답자의 표시기를 잘 살피고 GPS를 활용한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주차장 바로 곁에 있는 목조건물 뒤쪽으로 화장실과 산행 개념도가 있다. 관광 안내도에 가까이 참고만 하는 것이 좋다. 산행코스는 대체로 용연 제1폭포를 기점으로 하는 코스가 일반적이다. 사령관동굴이나 차재산 (591m)까지는 길눈이 밝은 사람과 동행해야 한다. 들머리는 목조건물 뒤 100m 거리에 있는 화강암 표지석에서 오른쪽 들어서면 된다.

5분 만에 만나는 용연 제1폭포는 기대 이상이다. 20m 높이 바위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장관이다. 2단 폭포 형태를 띠고 있으며, 평소에도 물이 마르지 않지만, 비가 온 뒤에는 용이 승천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된다. 용연 제2폭포는 10여 분 계곡을 오르면 등산로에서 약간 비껴난 곳에 있다. 제1폭포보다 우람한 형태는 아니지만 무속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한다. 등산로 주변 경사면에는 고로쇠 수액 채취를 위한 가느다란 파이프가 눈에 자주 띈다.

임진왜란 승병 이끌었던 해감선사 사리탑

원시림 같은 계곡을 벗어나면 시야가 풀리며 임도와 만난다. 햇살 좋은 언덕에 자리잡은 부도밭엔 조선 후기 고승인 소요당 해감선사의 사리탑이 있다. 담양 출신으로 임진왜란 당시 용추사 주지로 있다가 승병을 모아 거병했다. 기록에 의하면 금성산성에서 의병장 김덕령과 연합하여 왜적을 물리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용추사는 부도밭 삼거리 갈림길에서 200m 지점에 있다. 지금은 고찰의 위엄은 없지만, 526년 (백제 성왕 4)에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임진왜란 때 해감선사가 승군을 일으켰던 호국불교의 성지다. 정유재란 이후 소실된 것을 1630년에 중창하였으나 다시, 6·25를 거치며 전각이 모두 불타버렸다. 현재의 위치는 옛 터에서 300m 아래에 용추봉의 기운을 머리에 이고 있는듯한 산세다.

정상을 가려면 용추사 입구로 되돌아와서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가마터를 따라 10분 거리 언덕에서 왼쪽 숲으로 들어선다. 이정표는 없고 산행 리본을 표시기 삼아야 한다. 곧장 이어지는 호남정맥 사거리에서부터는 허리 높이의 산죽과 철쭉 잡목지대를 30여 분 오르내리면 용추봉 정상이다. 잡목에 의해 시야는 막혀있고, 정상석은 2금용관에서 세운 스테인레스가 대신한다. 내리막을 20여 분 가면, 갈림길인데 길이 모호하다. 왼쪽은 신선봉으로, 오른쪽은 호남정맥인 차재산 방향이다.

용추봉 산행의 백미는 신선봉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좋을듯하다. 신선봉에 올라서면 산중의

왕이 된 기분이다. 가슴이 확 트이며 멀리 백방산과 내장산, 추월산 능선을 사열대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파노라마 풍경이다. 급경사지인 하산 길은 퇴적암의 종류인 이암층으로 점토가 자갈처럼 잘게 부서져서 미끄러우므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시원정 (始源亭)은 시멘트로 만든 이중 구조의 팔각정이다. 호남지역의 유명한 서예가 장정 (長田) 하남호 선생의 현판이 걸려있다. 이곳에서 곧장 용소로 바로 내려갈 수 있다. 출렁다리는 현수교로 30m 높이, 67m 길이에 불과하지만 상당한 고도감이 느껴진다. 주변의 경치와 계곡의 풍광은 압권이다. 다리 건너 철 계단을 오르면 능선 안부에 이르게 되고 우측 방부목 계단 아래쪽으로 150m 지점에 장성 북하면 출신 김병영이 은신하던 사령관 동굴 이정표가 있고, 10여 분 더 오르면 절벽 아래 절묘한 곳에 사령관 동굴 비트가 있다.

용소는 시퍼렇고 깊은 커다란 연못 형태를 하고 있다. 영산강 물줄기는 남한 4대강 중 가장 짧은 길이지만, 이곳 용소에서 당당하게 출발하여 담양호에서 잠시 몸집을 키운 다음 광주와 나주, 함평, 영암의 들을 풍요롭게 적신 후 목포에서 바다와 몸을 섞는다. 용소에서 구불 구불한 계곡을 따라가면 주차장이다. '남부군' 영화의 마지막 자막에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 남북 양쪽의 사망자 130만 명, 행방불명 111만 명, 이 작품을 그들의 영전에 바친다'라고 쓰여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서는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글·사진·김희순 산 전문기자

▶산행길잡이 주차장-제1폭포-제2폭포-삼거리-용추사-삼거리-가마터-호남정맥 교차점-용추봉-호남정맥 갈림길-신선봉-출렁다리-용소-주차장 (10.1km, 순수산행 4시간 10분)

▶맛집 가마골계곡 하류에는 닭요리 전문점이 즐비하다. '가마골 봉쥬르'는 닭백숙을 부드럽게 잘하는 집으로 소문났다. 대형차 및 승용차 백여 대까지 주차가능하다. 백숙 1마리 8만 원 (2~4명 기준), 닭볶음 8만 5000원. 후식으로 나오는 닭죽은 녹두가 가득 찹히는 맛이 매우 좋다.



용소 (영산강 시원지)